



청송심씨 심벌마크

靑松沈氏宗報

발행인 : 회장 심대평
편집인 : 편집장 심규선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5층
전화 : (02)2267-7857
(02)2267-9339
FAX : (02)2269-7755
인쇄 : J.M미디어
(02)2267-9646

격월간 제154호(1955년 7월 5일 창간)

홈페이지 | www.csshim.or.kr

2022년 3월 31일(목)

잘못된 심덕부 도원수 진포대첩 설명문, 군산시 “바로잡겠다”

대중회 “도원수를 최무선 부하처럼 표기한 것은 잘못” 지적하자 군산시 수용

전북 군산시 성산면 금강시민공원 내 ‘진포대첩 기념탑’의 안내문이 4세조 심덕부(沈德符) 도원수의 활약 등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군산시가 “바로잡겠다”는 뜻을 2월 하순 대중회에 알려 왔다.

대중회는 지난해 9월 7일 송조사업추진심의회(위원장 심재덕)를 열고 ‘진포대첩기념탑’ 안내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심대평 대중회장 등이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다. (2021년 11월 발행 종보 151호 1면과 2면 참조). 또 2월 14

일에도 군산시청에서 시청에 근무하는 일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군산시가 안내문을 수정키로 한 것은 이와 같은 활동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진포대첩은 고려 우왕 6년인 1380년 진포(지금의 군산)에서 고려 수군이 처음으로 화약을 이용해 왜구를 크게 무찌른 해전이다. 이 대첩의 도원수가 심덕부(沈德符), 상원수가 나세(羅世), 부원수가 최무선(崔茂宣)이었다. 군산은 1999년 개항 100주년을 기념해 기념탑을 만들었다.

그런데 ‘진포대첩의 유래’라는 설명문은 “이때에 최무선 장군은 나세, 심덕부와 더불어”라고 표현해서, 마치 심덕부가 최무선의 부하이고, 나세보다도 아래인 것처럼 쓰고 있다.

대중회는 “최무선 장군의 공적은 공적대로 인정하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야 하는 안내문이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군산시청에 안내문의 수정을 요구했다. 또 군산시청에 진포대첩의 도원수인 청성백 심덕부 장군의 동상 건립도 건의했다.



진포대첩 도원수 4세조 청성백(淸 德符) 활약 바로잡기 실무협의(2월 14일, 군산시청). 왼쪽부터 심종완 군산시 계장, 이경배 군산시 공원계장, 심문태 산림복지과장,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규정 대중회 재무이사 (사진=심정용 군산시 주무관, 심재성 익산시)



진포대첩 기념탑 앞에 있는 안내문.

국가와 사회 빛낼 청송심씨 제4기 장학생 14명 선발



청심장학회는 3월 25일 이사회를 열고 제4기 장학생 14명의 선발을 승인했다. 대상은 고교생 6명과 대학(원)생 8명 등 모두 14명이며, 이 중 4명은 외손이다. 고교생에게는 연간 3백만 원씩을, 대학(원)생에게는 5백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번 4기에는 모두 34명의 재원이 지원했으며, 학업성적과 인성, 발전가능성, 사회와 국가에 대한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 3월 16일 열린 청심장학회 제4기 장학생 선발심사. 왼쪽부터 임성호 위원, 심오택 위원장, 심대평 이사장, 심은석 위원, 심상익 위원, 심규정 위원.

19세 이상 종원과 여성 종원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1. 청송심씨대중회는 현재 종원 6000여 명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연 6회(1, 3, 5, 7, 9, 11월) 발간하는 종보를 통해 종중의 각종 대소사를 알리고 회의 소집을 통보하는 등 종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인구조사 결과 청송심씨는 국내외에 약 3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중회에서는 홈페이지, 종보, 족보 수단접수, 지역총회와 파종회 등을 통해 종원들의 연락처를 파악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종원은 6000여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종원들은 10% 정도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청송심씨대중회는 남녀를 불문하고 만19세 이상에게 종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

다. 그동안 종중과 연락이 없던 분들은 아래 대중회로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시어 종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종보를 받는 각 파종회 및 전국지역총회와 종원들께서는 가족이나 주변에 만19세 이상인 일가분이나 종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 일가들에게 대중회에 연락처를 알리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중회 연락처 : 전화: 02-2267-7857 팩스: 02-2269-7755
메일: set217@naver.com 주소: 서울 중구 을지로30길 47 (찬경회관 5층)
2022년 3월

청송심씨대중회 회장 심대평

沈영감 심민섭



인터넷 족보 사진등재 안내

본인, 배우자, 가족, 묘소, 재실, 비석, 훈장, 표창장 등 사진들을 보내주시면 인터넷 족보에 등재하여 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22. 2. 1.~7. 31. (6개월 간)

○ 사진등재 : 2022. 8. 1.~10. 31.

- 사진크기 : 증명사진(반명함) 이상, A4(210×297mm) 이하

- 사진설명 : 본인(배우자) 이름, 기타 사진은 내용설명

- 등재매수 : 1인당 10매 이내

- 등재비용 : 1매당 5천원

【계좌번호 : 농협 301-2267-7857-81】

○ 열람 및 이의신청 : 2022. 11.1~11.30

○ 등재일자 : 2022. 12. 31. 까지

○ 사진제출 방법

1) 우편 : 서울시 중구 을지로30길47 찬경회관 5층

2) 메일 : set217@naver.com

○ 사진 제출 시 작성할 내용

본인(배우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부(父)의 이름, 사진 설명, 인터넷족보 등재 사항(○권, ○○페이지)

제4기 청심 장학생 명단

심준석		덕수고등학교 3년	뛰어난 신체조건(193cm)에서 나오는 강속구(154km)와 다양한 구질을 갖고 있는 투수로서 장래가 촉망됨.
심명우		대전명석고등학교 3년	반장으로서 리더십과 책임감이 있고 성실함. 매사에 솔선수범하며 항상 친구들을 배려하고 친절하며 성적도 뛰어남.
심연재		미국파이오니아헤리티지 중학7학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유학중. 플룻 전공으로 전미음악교사협회 전국경연대회(MTNA National Conference) 주니어 부문(목관부문)에서 1위를 하는 등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향후 훌륭한 플루티스트가 될 것으로 기대됨.
심민경		삼성여자고등학교 2년	학교생활에 매우 적극적이며 모범적이고 성적도 우수함. 장래 희망은 공학계열을 전공해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을 아끼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조민수		선덕고등학교 2년	자율형사립고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함. 물리학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장래 로봇공학자가 되어 재난상황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 개발이 꿈.
권유은		울산 화암고등학교 2년	모든 교과에서 성적이 우수하며 모범적이며 반장으로 기획력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음. 장래 꿈은 훌륭한 의료인이 되는 것임.
심지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국제대학 경제학과 3년	혼자만의 기준이 아닌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인정할 수 있는 판결을 하는 법조인이 꿈.
심우종		고려대학교 생명공학과 3년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을 연구해 환자의 질병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환자의 특성에 맞는 약을 찾아주는 맞춤형의학, 즉 의료 데이터 분석 및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가 꿈.
이한주		순천향대학교 생명과학과대학원 박사과정	해양생명공학분야에서 연구에 충실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음.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어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표.
송유진		상명대학교 그린화학공학과 2년	장기(臟器) 수준의 세포 실험을 체외에서 할 수 있도록 체외 장기 칩을 연구 중이며 화학, 생명 분야의 연구원이 되어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심지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1년	지적 호기심이 많고 집중력이 뛰어나며 활발한 성격으로 현재 유엔기구 산하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음. 경제학자가 되어 후진을 양성하는 것이 꿈.
심주은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박사과정	세계 나노분야 최정상 연구자가 되어 인류가 안고 있는 질병, 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심진우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대학원 2년	인간의 행동, 능력, 한계, 특성 등을 연구해 이를 도구, 기계, 시스템, 직무, 환경에 응용함으로써 생산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작업 공간을 만드는 인간공학을 연구하고자 함.
심윤재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년	항공기 개발과 관련된 실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창조적 혁신을 이끌어 갈 국내 최고의 항공 유도 분야의 기술 기획 전문가가 되고자 함.

온 국민의 관심사, 코로나 확진자 예측 모델로 주목

“하루 50만 명 넘는다는 예측, 두려웠지만 효과적 방역 위해 정보 공유”

학생들 사이에 수포자(수학포기자)라는 말이 생긴 지 오래다. 여자에게는 수학이 더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런 선입견을 깨고 온 국민의 관심사인 코로나 확진자 예측 모델을 만들어 주목받는 청송심씨 여성 수학자

가 있다. 심은하 송실대 수학과 교수다. 수학을 즐기는 그는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 하다”는 공자의 말을 증명했다.



〈여성동아〉제공

심은하 교수가 걸어온 길

1997년 연세대 자연과학부에 입학한 후 1998년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 1998년 캐나다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 편입해 수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같은 대학 대학원 수학과에 입학해 2004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석사학위 지도교수였던 프레드 브라우어(Fred Brauer) 교수의 영향으로 그때부터 감염병 확산 수리 모델링에 전념했다. 박사학위는 그 분야 최고 권위자인 카를로스 캐스티요 차베즈(Carlos Castillo-Chavez) 교수의 지도를 받기 위해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Arizona State University)로 유학을 갔다.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2007년 예일대 연구원으로 박사 후 과정을 밟았다. 2010년 피츠버그대에서 첫 교수직을 시작하고 텔사대 수학과를 거쳐 2015년 송실대 수학과 교수로 1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코로나 백신 접종 정책과 국내 확산력 등에 관한 14편의 논문을 해외 우수 학술지에 게재했다.

- 어떻게 코로나 확진자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됐는지요.

“대학원 석사과정 때부터 감염병의 수리모델링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벌써 20년쯤 됐네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시작된 직후, 코로나의 국내 확산력을 수치로 측정해 발표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예측 모델을 만들어 예측 결과를 주기적으로 질병관리청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예측 모델

은 제가 하는 연구의 한 분야이고, 코로나의 지역별 확산 양상과 연령별 최적화 백신 접종 정책 예측, 방역 정책의 효율성 평가와 예측 등이 저의 주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 하루 20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설마했는데.

“실은 제가 한 달 전쯤(3월 초순)부터 예측한 결과입니다. 저도 결과를 발표하기가 매우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섰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몇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나오는 매우 정교한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예측하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질병관리청과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 예측 모델로 볼 때 앞으로의 전망은.

“국내에서는 오미크론이 델타변이를 대체하며 우세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간의 우세종 다툼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일 확진자수가 정점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이 40%를 넘어섰고, 델타크론까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 한국의 지금까지의 방역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국의 방역 대책 평가는 오미크론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이전에는 방역대책도 상당히 효과적이었고, 국민의 협조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의 수가 연일 30만 명이 넘는 최악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방역패스를 없애는 등의 정책은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방역 정책의 효과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이 본인과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위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방역에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된 경위는.

“어린 시절 저는 딱히 이과나 문과 구분 없이 다방면에 흥미가 있었고, 수학만이 아니라 글쓰기나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항상 음악을 들으며 연구를 하고, 읽고 싶은 책은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수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음악과 글쓰기는 직업이 아니라 취미로 남겨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수학은 오래 매달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

고, 매우 어렵긴 하지만 흥미가 줄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이어서 편견 없이 상대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학문도 성격과 매력이 있는데, 수학과 저의 조합은 썩 잘 어울리나 봅니다. 버리지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 수학을 배우는 여학생들에게 응원을 보낸다면.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내적 갈등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수학은 자신과의 싸움인데, 초기에는 다른 사람의 성공이 더 우월한 것 같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또 여성 수학자가 적다 보니, 사회적 편견이 여성의 수학계 진출을 막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 분야는 창의력과 이해력, 상황 판단 능력, 분석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장점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맑은 눈으로 꾸준히 본인을 관찰하면서 숨겨진 재능을 빨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영화배우 심은하와 이름이 같은데,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유명 여배우와 이름이 같다 보니 처음 만난 분들이 이름을 쉽게 기억해 주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래전, 한국으로 입국할 때 입국장의 공무원이 이름을 보고 저를 불러 세웠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부모님께서 밤하늘의 은하수를 떠올리며 지어주셨는데, 아버지는 제가 과학자가 되길 희망하며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름 덕인지 부모님의 뜻처럼 과학자로 살고 있는 걸 보면 이름이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 평소 청송심씨나 부리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지요.

“청송심씨는 효자가 많고 여자들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인구 수에 비해 왕비를 많이 배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무래도 심씨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심 씨를 만나면 왠지 먼 친척인 듯하여 매우 반가웠습니다. 제 친할아버지는 경찰관으로서 6.25 전쟁 때 전사하셨는데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요즘 흔히들 경제력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집안을 평가하는데, 세상의 발전에 비해 사고나 문화는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듯 합니다. 저는 경제력이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가 그 집안의 품격과 품위를 결정하는 세상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정리=심규선 중보 편집장)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리 청송심가 이야기(24)

임진왜란 때 의령 정암진 전투를 승리로 이끈 의병장

심기일 할아버지, 왜적이 수심 재려 몰래 박아놓은 말뚝 옮기고 기습공격



沈厚燮

아동문학가 · 대구문인협회장

보혜(輔慧)야, 나라에서 세운 사당(祠堂)에 이름이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니?

임진왜란 당시 경남 의령 지방에서 일어난 의병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 충익사(忠翼祠)에 우리 기일(紀一) 할아버지가 올라

있는데, 안내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

심기일(沈紀一), 1545~1610, 직책: 기찰(譏察) 의령 출신. 광재우 의병부대는 함안지방에서 의령으로 침입해 오는 일본군을 방어하기 위해 정암진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 그가 책임을 지고 있었다. 특히 그는 정호(鼎湖)의 배를 지키고 있으면서 왕래하는 것을 기찰하는 직책을 맡았다. 사후에 병조참판의 직위를 받았다.

그리고 현풍곽씨(玄風郭氏) 문중의 ‘광재우 장군 휘하 17장 주요 약력 요목’에는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심기일(沈紀一) 1545(인종1년)~1610년(광해군2년)

자는 남중(南中)이요, 의령(宜寧) 만천(萬川) 출신이다. 광재우 의병부대는 함안(咸安)지방에서 의령(宜寧)으로 침입해 오는 왜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암진(鼎岩津)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때 그가 책임을 맡고 있었다. 특히 그는 정호(鼎湖)의 배를 지키고 있으면서 왕래하는 것을 기찰(譏察)하는 직임(職任)을 맡았다고 한다. 그가 이 직임을 훌륭히 잘 수행했기 때문인지 광재우 의병부대의 기찰은 그의 직임이 되어 버렸다. 그의 벼슬은 참봉(參奉)이었고, 뒤에 병조참판(兵曹參判)을 추증받았다.

두 기록에서 모두 정암진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 바로 우리 기일 할아버지임을 밝히고 있어. ‘기찰’이라는 임무는 적(敵)은 물론 의병 안의 동향도 살펴서 다음 작전에 대비하는 것이었어. 우리 기일 할아버지는 정암나루를 오고 가는 배의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잘 해내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의 동향을 잘 파악하여 승리의 초석을 놓으셨어.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나중에는 의병 전체의 규율을 바로잡는 내부 경찰 역할까지 맡게 되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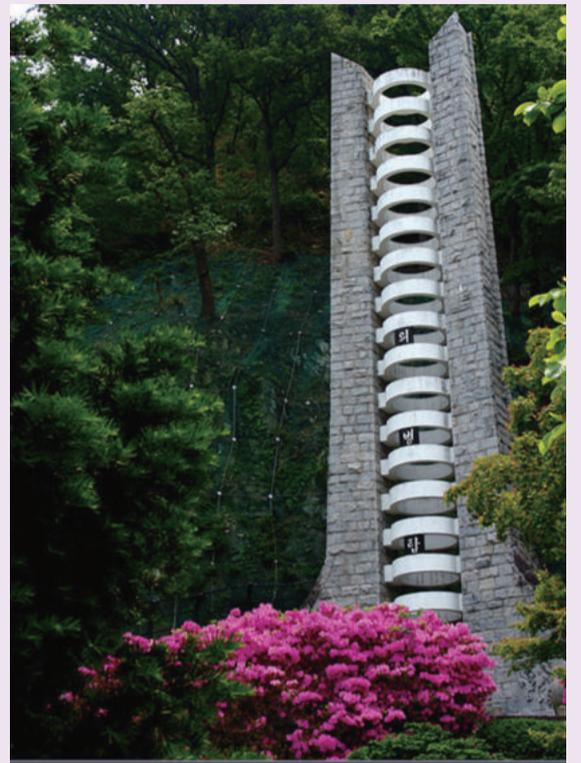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정암나루를 건너야만 의령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의령에 들어와야만 군량미를 약탈할 수 있었어. 따라서 정암나루는 지키는 의병 입장에서나, 공격하려는 왜군 입장에서나 물러설 수 없는 요충지였어.

이에 왜적들은 낮에 강물의 깊이를 측정하여 말뚝을 박아 표시를 해놓고, 밤중에 몰래 건너려고 하였어. 이를 발견한 분이 바로 우리 기일 할아버지였어. 기일 할아버지는 이 말뚝을 몰래 물이 깊은 곳으로 옮겨 박아 왜적들을 물에 빠뜨리는 작전을 세우게 되었어.

해가 질 무렵 모두 저녁을 먹을 때에 우리 기일 할아버지는 조용히 강을 건너 왜적들이 박아놓은 그 말뚝을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겨 박았어. 이윽고 식사를 마친 왜적들은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어둑기를 기다려 낮에 박아둔 말뚝을 찾아 기어왔어. 어두운 밤이라 더듬거리며 겨우 말뚝을 찾았는데, 그곳은 젖은 진흙이 가득한 뺨이었어. 왜적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강기슭에 매복해 있던 우리 의병들이 북과 썰과리를 울리며 왜적들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어.

이 정암진 전투에 대해 의령군청 누리집 ‘심기일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

임진란에 광충익 군중에서 삼혈동맹하고 정암강 요로를 지켜 주야로 경계망을 펴고 있을 때, 적병들이 뱃길을 표시하여 두었던 것을 공(公)이 남몰래 밤에 건너가서 그 뜻말을 물이 깊은



의령 충익사에 있는 의병탑. 충익(忠翼)은 광재우 장군의 시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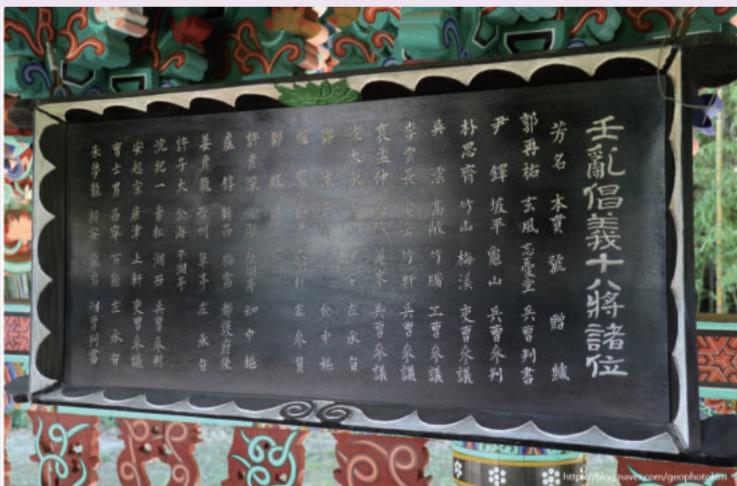
곳으로 옮겨 놓았다. 익일 미명에 적들이 건너오다가 공이 미리 함정을 파서 대비하였던 수렁에 빠져 갈팡질팡할 때, 공(公)은 홍의백마(紅衣白馬)로 광장군을 가장하고 나는 듯이 충돌하니 적병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하고, 이로부터 감히 범하지 못했고 주민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은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전투의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 기일 할아버지가 해내셨던 거야. 이 정암진 전투로 인해서 의병들은 의령읍을 지켜낼 수 있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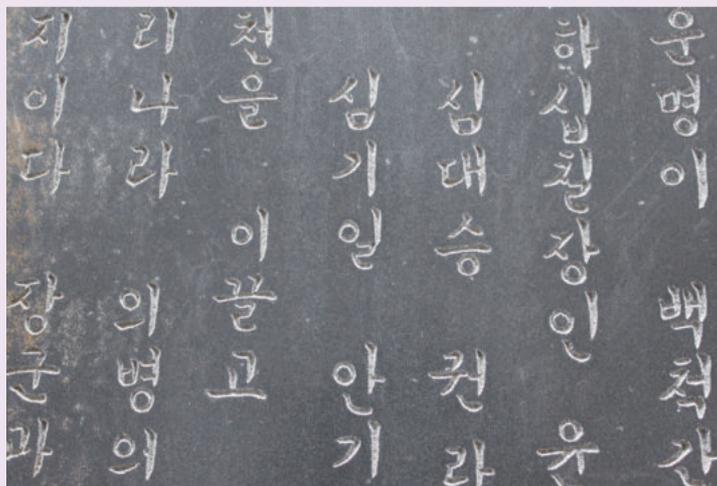
우리 기일 할아버지는 지난 호 정보에 소개했던 의령 의병 선봉장 대승 할아버지와 가까운 집안 간이었어. 고조부 대에 치(致), 우명(遇明), 습(襲) 등 3형제분이 계셨는데 대승 할아버지는 맏집 후손이었고, 기일 할아버지는 둘째 집 후손이었던 거야. 그런데 두 분 모두 청송심씨 12세손으로서 10촌 형제간이셨어. 당시 대승 할아버지는 28세, 기일 할아버지는 47세이셨어.

이로 보면 우리 집안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기꺼이 일어나 몸을 바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 지금 기일 할아버지는 의령읍 대신리 산 90번지에 잠들어 계시는데, 여전히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거야.



충익사에 걸려 있는 의병장 신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기일, 여섯 번째가 대승 할아버지.



의병탑 뒷면에 새겨져 있는 대승, 기일 할아버지 이름.

선조의 숨결을 찾아서

순절하고 베풀고 책내고... 합천 대양면의 '이계(伊溪)문중'

악은공 후에 심자광(14세) 심능백(19세) 심학환(22세) 선조의 업적



沈載錫
역사학자

조선시대를 양분하는 사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다. 이 두 전쟁기에 청송심문의 선조들도 목숨 바쳐 헌신했다. 본고에서는 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순절한 송호 심자광(沈自光, 1592~1637)

선조의 행적을 살피고 그 후손인 수암 심능백(沈能百, 1783~1862) 선조가 합천에서 부를 일궈 이웃에게 베푼 사실, 심학환(沈鶴煥) 선조가 윗대 어른들의 유고를 모아 책으로 펴냈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우선 심자광 선조와 그 후손들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4세	악은공 심원부 전리판서, 두문동 72현
5세	↓ 심천주 현령, 1957년 안동에 설단과 비석
6세	↓ 심세기
14세	↓ 심자광 호 송호(松湖), 훈련원정, 증 좌승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순절. 합천 매목리 심씨고가 주인. 賜詩(왕이 내린 시) 있음.
19세	↓ 심능백 호 수암(修巖), 효행, 개간사업, 송덕비(飢民救恤, 過客善對)
22세	↓ 심학환 『靑己世稿』 편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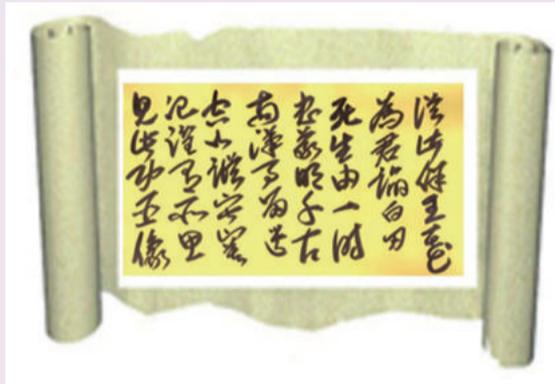
1. 병자호란 시 순절한 심자광과 초혼묘

병자호란(1636)이 발발한 후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대왕은 그곳에서 고립됐다. 이때 한양에 남아 도성을 지키던 유도대장(留都大將)은 청성백 심덕부의 후에 심기원(沈器遠)이었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한양의 전세(戰勢)를 알린 이는 악은공 심원부의 후에 심자광(沈自光)이었으니, 이 또한 큰 인연이다.

심자광은 천신만고 끝에 산성에 도착하여 인조대왕에게 밀서를 전한 뒤, 며칠 후 다시 왕의 밀지를 가슴에 넣고 적진을 빠져나간 중 청군에게 사로잡혔다. 청군이 협박하여 항복을 받으려 했으나 공이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오랑캐가 우리 강토에 침범하여 우리 군부(君夫)를 육보이니 함께 하늘을

이고 살 수 없거늘 어찌 항복한단 말인가” 하고 마침내 혀를 깨물어 분사했다. 1637년(정축년) 정월 초사흘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인조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이 공신을 보니/수은각이 일어나네/텅 빈 산에 자취 적막하건만/남한산성의 일유상(遺像)에 남아있네/충의는 천고에 빛나고/생사는 일시의 일이네/임금 위해 시퍼런 칼날 무릅쓰니/이로부터 왕업의 기틀 보전했네

유체를 찾지 못하자 후손들은 고향인 합천군 대양면 대목리(伊溪마을)로 혼을 모셔와 초혼장으로 모셨다.



송호 심자광의 초혼묘. 합천 대양면 대목리에 있다. (2022년 3월 4일 촬영)

2. 주민들에게 아낌없이 베푼 심능백과 송덕비



합천 대목리 심씨고가(沈氏古家) 앞에서. 가운데는 심능백 할아버지의 송덕비 모형. (2022년 3월 4일 촬영)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 생활하던 후손 중 수암 심능백 공은 개간사업으로 큰 부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부를 아낌없이 나누었다. 이웃 주민 중에 굶는 이가 있으면 구휼했고, 집에 손님이 묵는 건물까지 두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조건 없이 숙식을 베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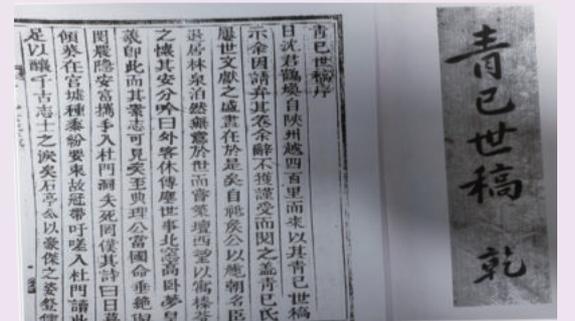
고마움을 잊지 못한 과객들이 돈을 모아 심능백 어른의 덕을 칭송하는 ‘송덕비’를 양산리 떼주막 도로 옆에 세웠으나, 일제 때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없어졌다고 한다. 그 송덕비에는 “기민구휼 과객선대(飢民救恤, 過客善對: 굶주린 사람을 구하고 과객을 후하게 접대하셨다)”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심능백 선조의 공덕비 모형.

3. 선대의 유고를 편찬한 심학환

송호공의 후손으로 22세인 심학환 선조는 학식 높은 선비로서 모운정(慕雲亭)을 건립하고 후학을 가르쳤다. 그는 선조들의 유고를 모아 1908년 『靑己世稿』라는 목판본을 출간했다. 지금은 목판이 사라졌지만, 큰돈과 많은 시간을 들였을 것이다. 이 어른이 아니었다면 이계문중(伊溪門中)의 글들은 없어졌을지 모른다.



심학환 선조가 출간한 『靑己世稿』

청송심씨 악은공과 ‘이계문중’은 왕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일신을 바치고, 굶주린 이웃을 구휼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 근래에도 이계마을 출신 심의조 합천군수에 대한 주민들의 호평이 자자하다. 이계문중의 애국과 위민, 근면성실함이 맥맥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리즈 끝)

종회탐방 — 만우공종회를 찾아서

조상 모시려 최초로 본향 청송 덕천리로 돌아온 만우공

후손들 600년간 우애와 배려의 정신 이어가며 시조 산소와 사적지 돌봐

1. 본향인 청송군 덕천리로 환거한 최초의 후손

만우공(晩愚公, 휘 효연)은 4세조 악은공(岳隱公, 휘 원부)의 둘째 손자로, 선조를 모시기 위해 최초로 본향 청송에 입향한 분이다. 만우공은 1420년(세종2)에 서울의 청과동에서 출생했으나 할아버지 악은공께서 고려말에 불사이군의 충절을 지키며 두문동(杜門洞)으로 들어갈 당시 아들 3형제(영동정공 천윤, 현령공 천주, 둔재공 천식)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 선산을 수호하며 책을 읽고 농사를 지으며 살라”고 한 유훈(遺訓)을 받들어 1431년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德川里)로 돌아오셨다.

만우공은 가선대부 호조참판(嘉善大夫 戶曹參判)의 관직을 버리고 입향해 덕천리에 작은 정자를 짓고 살았다. 그동안 시조 문림랑공(휘 흥부) 묘소 등 선산을 돌보며 학문 탐구와 후진 양성에 애쓰시다 1490년 서거하셨다. 형인 석촌공(石村公, 휘 효상)과는 우애가 아주 돈독했다. 이는 석촌공께서 경남 산청 산음면 답곡리에서 아우 만우공을 청송으로 떠나 보내면서 남긴 ‘환거청송(遷去靑松)’이라는 글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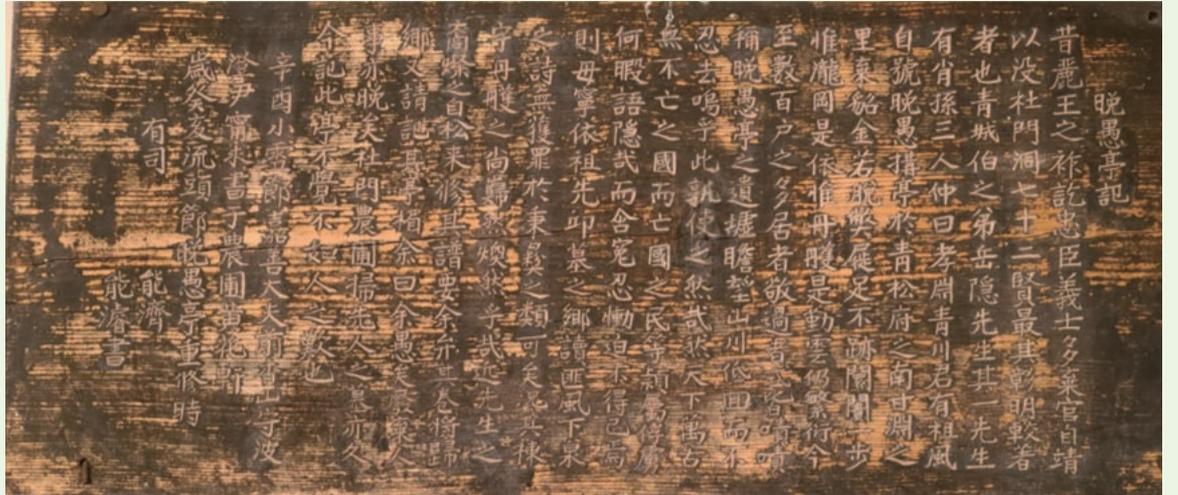
만우공께서 덕천리에 입향한 지 3년 뒤인 1434년 장조카 농천공(弄泉公, 휘 태산)도 안동 재산(才山)에서 청송 월명촌(月明村)으로 이주했다. 이 무렵에 석촌공 후손들은 덕천리에 생활터전을 마련했고, 만우공 후손들은 청송부(靑松府)의 남쪽에서 30여 리 떨어진 곳에 터를 잡았다. 이후 600년간 모여 살아왔는데 현재는 감연리(甘淵里)와 대전리(大前里)가 집성촌이다.



앞줄 왼쪽부터 심광섭 악은공종회 총무,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능광 대중회 부회장(청송), 심상복 만우공종회유사, 심상복 시조처소 유사, 뒷줄 왼쪽부터 심전택 이사, 심의걸 이사, 심상봉 이사, 심휴택 이사(사진=심남규 편집위원)



파천면 덕천리의 제단비(祭壇碑)



만우정에 걸린 만우정기

2. 600여년 동안 시조 묘소 관리

만우공 후손들은 600여 년 동안 시조 묘소와 중대산소 수호, 찬경루와 만세루, 운봉관 등 사적지 보존에 앞장서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후손들은 석촌공, 만우공, 군사공(휘 자연) 3형제의 ‘우애와 배려’의 정신을 자랑스럽게 이어오며 송조돈목을 실천하고 있다.

만우공종회는 특히 송조사업을 모범적으로 행하는 효행 종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만우공 묘소는 덕천리 구지곡(德川里 求之谷) 좌원(坐原)에 있다고 전해졌으나 실전(失傳)되어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후손들은 1960년 덕천마을 각골(속칭) 국도변 오른쪽 산 아래에 제단비(祭壇碑)를 건립하고 매년 추향을 올리고 있다.

집성촌 감연리에는 만우공의 유덕을 기리는 ‘만우정(晩愚亭)’이 있다. 원래 공(公)께서 1448년(세종30) 덕천리에 처음 건립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돼 1804년(순조4)에 현재의 장소에 다시 중건한 것이다.

만우정 외에도 재실인 송재(松齋)와 원천재(源泉齋)가 있고, 이웃 대전리(나실)에는 익야정(翼也亭)과 모의재(募義齋) 등이 있다.

3.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후손들

만우공 후손들은 선조의 훌륭한 정신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국가와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청송심씨대중회 제

4대 회장(2011.4.29~2014.4.7)을 지낸 심의탁 회장님이 만우공 후손이다. 심의환 전 총무처장관은 의탁 회장님의 아우로, 상공부 차관 재직시절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해 산업화를 이끈 주역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심명택 전 청송문화원장이 심문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오늘날에는 악은공종회장을 지낸 심의철 원일사 회장, 심의환 장관의 차남 심영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 3남 심진택 캐나다 밴쿠버한인회장, 막내딸 심은미 미국 버클리대 교수,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 심금택 세원특수금속 대표, 심상형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단 부행장, 특허청 서기관 출신 심상희 변리사,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낸 심상섭 변호사, 심보경 국토교통부 사무관 등이 활약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심의운 회장, 심구택 부산종회 감사 등이, 대구에서는 심정택 심이비인후과병원장, 심훈 대구종회 회장, 심유택 전 대구종회 청장년회 회장 등이 봉사 중이고, 심의순 대구미래대 학장, 심충택 영남일보 논설위원, 심영수 경북도교육청 기획조정관, 심성택 대구동구청 행정관리국장 등도 배출했다.

청송에서는 심능광 대중회 부회장(청송노인대학장), 심전택 대중회 이사, 심상봉 만우공 유사, 심상철·심상복 전현직 대중회 청송유사, 심연택 전 대전초등학교장, 심상준 전 청송군교육장, 심경택·심중환 전 청송군청 사무관, 심상걸 청송청장년회 총무, 심명환 전 청송청장년회 총무, 심종택 청송군 노인회장 등이 문중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취재 = 심남규 편집위원)



청송군 부남면 대전3리(나실)



청송군 부남면 감연리

일가기업 탐방 — 전남 여수의 ㈜남양종합목재

28년간 한결같이 착한 가격, 철저한 시공, 친절한 A/S 고수

심은택 회장, “조금 손해 보더라도 신뢰가 우선” 모토로 어려움 극복하며 성장



심은택 회장

남양종합목재

최고의 만족



- 구조용목재
- 방부목
- 데크재
- 보드류
- 목재
- 내장재
- 외장재
- 계단재
- 전기판넬
- 영림도어몰딩 외
- 영림키친불박이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무 목
남양종합목재가 양질의 목재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좋은 나무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다는 내용의 ㈜남양종합목재의 홍보물.

1. 심은택 회장의 경영 철학

1994년 전남 여수시 봉산동의 작은 골목에서 남양종합목재를 창업하여 28년 동안 기술력 향상과 고객 감동을 기업경영 철학으로 삼아 왔고, 그 정신은 오림동으로 회사를 옮긴 지금도 변함이 없다.

창업자인 심은택 회장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가슴에 새기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자’는 좌우명으로 살아왔다. 자신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을 생각하며 ‘성실성과 책임감’을 생활신조로 삼아 ‘목재산업에 인생을 걸겠다’는 의지로 온갖 우여곡절을 이겨냈다.

심 회장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모든 고객과 돈독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겨 다소 손해를 불지언정 떼땀하지 않은 거래를 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어느 기업가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는 말하지만 누구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경영 철학이다. 그러나 심 회장은 이를 실천함으로써 성공을 일궈냈다.

심 회장의 이런 정신 덕분에 남양종합목재는 지금도 안정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큰 신뢰를 받고 있다.

2. 남양종합목재가 하는 일

㈜남양종합목재는 목조주택 자재를 시공하거나 판매하는 강소기업이다.

이 분야 도소매업의 최우선 가치인 성실 시공, 아

름답고 행복한 공간 창조, 고객 만족, 사후관리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착한 가격과 철저한 시공, 친절한 A/S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 또 고객들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영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

3. 사회적 봉사에 열심

심 회장은 ㈜남양종합목재가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길 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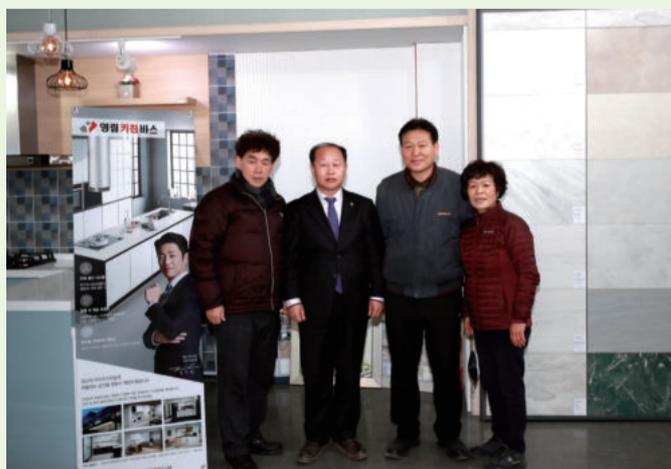
그동안 여수시 광림동주민센터가 주관한 홀몸노인 등 저소득층 가정돕기 후원행사에 기부금품을 협찬하고, ‘아름다운 여수를 만드는 사람들’의 형설 현채방 조성사업에도 무상으로 장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 회장은 차남인 상종씨를 ㈜남양종합목재 대표이사로 경영에 참여시켜 사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청송심씨종보 기업탐방을 계기로 청송심씨대중회와 문중에도 더 큰 관심을 갖고 일가분들의 일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취재 = 여수 심준섭 사진작가)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오림동)에 자리 잡은 남양종합목재.



왼쪽부터 여수 심준섭 사진작가, 심상익 대중회 문화이사, 심은택 남양종합목재 회장, 심 회장의 부인 박송애 여사.

대중회 · 지역총회 활동 이모저모

청심장학회 기수별대표 장학생 오찬간담회(3월 6일)



왼쪽부터 심규정 장학회 사무국장, 2기 장학생 대표 심소원(서울대 국제협력대학원), 심대평 장학회 이사장, 심오택 장학회 운영위원장, 심학섭 진행위터웨이 대표(심하진의 아버지), 1기 장학생 대표 심하진(영국 런던 금융감독위원회), 3기 장학생 대표 심재웅(고려대 로스쿨 과정), 심상역 장학회 운영위원.

청심장학회 이사회(3월25일)



왼쪽부터 심규정 이사, 심오택 위원장, 심창섭 감사, 심진섭 이사, 심상조 이사, 임성호 이사

청심장학회 운영설명회(2월 18일, 부산)



왼쪽부터 심상역 대외협력실장, 심오택 청심장학회 운영위원장, 심상균 대중회 고문, 심태섭 부산총회 총무, 심상보 부산총회 문화이사

울산 내금위총회 심규화 회장 주관 일가모임(1월19일, 울산)



왼쪽부터 심창소 성우소방이엔지 대표, 심명보 청수회 울산위원장, 심규명 변호사, 심일 심규화, 심상역, 심언보, 심용섭, 심광보, 심영철, 심국향 일가분

심무섭 사장 초청 일가모임(1월 19일, 울진)



경북 울진에서는 청송심씨와 삼척심씨 연합청년회가 '같은 뿌리'라는 유대감에서 항렬에 따라 호칭하며 우애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심영철 수원대 교수, 심상역 대외협력실장, 심용섭 前 오리온스단장, 심일울산 내금위총회 감사, 심국향 두머니물농원 대표, 심창선 곡산공중회 총무, 심두섭 울진 청장년회, 심정섭 북면농업협동조합 상무, 심재황 울진경찰서 경감, 심무섭 울진명성건설 대표.

그로우건설 심현보 회장에 기념액자 전달(2월 15일)



왼쪽부터 심주걸 달력디자인위원, 심현보 (주)그로우건설 회장, 심익섭 달력디자인위원, 심상역 문화이사

석촌공중회에 기념액자 전달(2월 25일)



왼쪽부터 심준섭 경운대 교수, 심상역 문화이사, 심상정 석촌공중회 고문, 심능광 대중회 부회장(청송), 심광섭 악은공중회 총무 (사진 = 심남규 총보 편집위원)

전남 여수총회 예방(2월22일, 여수 묘도)



왼쪽부터 심재수 여수총회 회장, 심재천 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 심상역 대중회 대외협력실장, 심능섭 묘도문화 부회장, 심학영 묘도문화장 (사진=여수 심준섭 사진작가)

우리총회 신년하례회(2월18일, 김포 심재성 창강산방)



왼쪽부터 심재성 창강산방 원장, 심규순, 심희재, 심경진 우리총회 사무총장, 심재금, 심형찬 수찬공중회 회장, 심익섭, 심재섭 우리총회 회장, 심문수, 심정환, 심진섭, 심국향, 심재만, 심용근 우리총회 회원 (사진=심재화 무속공중회 총무)

석촌공중회 법인설립회의 (2월25일, 청송찬경회관)



왼쪽부터 심재우 송소고장 장주, 심상벽 덕천휴양마을 사무국장, 심홍섭 대중회 이사, 심상직 덕천문중 회장, 심상칠 청송 찬경회관 관장, 심광섭 악은공중회 총무, 둘째줄 왼쪽부터 심남규 총보편집위원, 심준섭 경운대 교수, 심영섭 영동정공 유사, 심상법 이사, 심은섭 덕천문중 유사

소류공 심성지 의병장 추모모임(3월 1일, 청송)



앞줄 왼쪽부터 심상후 청송근의회 부의장, 심상벽 덕천휴양마을 사무국장, 심상칠 청송회관 관장, 심순택 이사, 심길택 전 시조처소 유사, 심능광 대중회 부회장(청송), 심상희 이사, 심홍섭 악은공중회 부회장, 심창섭 대중회 이사, 심훈섭 시조처소 유사, 심상정 석촌공중회 고문, 뒷줄 왼쪽부터 심양섭 이사, 심봉섭 소류공 현손, 심은섭 덕천문중 유사, 심상국 대중회 이사, 심홍섭 전 청송문화원 부원장, 심상균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사진 = 심남규 총보 편집위원)

창원사복시정공중회 11세조 온양공(휘 인겸) 묘소 참배 (3월10일, 김포)



왼쪽부터 심재포 감사, 심재일 회장, 심재조 종손, 심재주 재무이사, 심흥보 총무이사 (사진=심창선 곡산공중회 총무)

곡산공중회 정기총회(3월 19일)



곡산공중회(회장 심재갑)는 김포시 소재 학운재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심재성 총보 편집위원)

청송문중 정기총회(3월 19일)



청송문중은 청송 찬경회관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전년도 결산보고와 금년도 사업계획을 심의했다.(사진=심남규 총보 편집위원)

청송신문 사람들 - 이런 일 저런 일

출판...취임...당선... 사회 곳곳에서 눈부신 활약

심희재

방송인 <매력, 스며든다> 출간



심은석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 회장 취임(1월 2일)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재선임(3월10일)



심육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1월 8일)



심정섭

대구 동구새마을금고본점 이사장(2월 18일)



심승보

한국융합기술연구원 부이사장 선임(3월 4일)



심정섭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장 당선(2월 16일)



2022년 연초 인사

<동북아역사재단> (12월 15일자)
◇연구위원 전보 ▲국제관계와역사대화연구소 심호성

<경향신문> (1월 8일자)
◇팀장 전보 ▲문화사업국 사업2팀장 심재건

<이데일리> (1월 8일자)
◇부장 승진 ▲채널디자인팀장 심인호

<충북 제천시> (1월 10일자)
◇5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의립동장 심상일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울산광역시> (1월 12일자)
◇6급이하 전보 ▲경제자유구역청 심재운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심재서

<충북 제천시> (1월 6일자)
◇5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심상현
▲의립지동장 심상일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대전광역시> (1월 21일자)
◇6급 승진 전보 ▲대덕구 심우송, 심은우
▲자치분권국 심상욱

<국방부> (1월 25일자)
◇과장급 ▲건설관리과장 심천수

<대구광역시> (1월 25일자)
◇5급 승진 ▲기획조정실 심선희

<코트라(KOTRA)> (1월 28일자)
◇해외과전 및 전보 ▲과테말라무역관장 심재상

<안전보건공단> (1월 26일자)
◇실장급 전보 ▲운영지원실장 심연섭

<법무부> (2월 7일자)
◇검사 ▲대구고검 검사 심재계(沈在桂)

<부산경찰청> (2월 10일자)
◇경감 ▲사하경찰서 심재철

<전북경찰청> (2월 10일자)
◇경정 ▲수사부 형사과 마약범죄수사대장 심남진
◇경감 ▲순창경찰서 심형섭

<전남경찰청> (2월 11일자)
◇경정 ▲구례경찰서 경무과장 심태식
◇경감 ▲광양경찰서 심재욱

<감사원> (2월 15일)
◇3급 승진 ▲감사원 과장 심수경
<국방부> (2월 16일자)
◇서기관 승진 ▲군수관리관실 심나영

<대법원> (2월 21일자)
◇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법관 정기인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심병직

<기획재정부> (2월 23일자)
◇과장급 전보 ▲외화자금과장 심규진

<국토교통부> (2월 24일자)
◇과장급 전보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심금숙
▲항공교통본부 항공위성항법센터장 심병섭

<부산교육청> (3월 1일자)
◇교감 전보 ▲녹산초 심미숙

<인천교육청> (3월 1일자)
◇교장 전보 ▲인천공항공고 신규민
▲제물포중 심준보
◇교감 전보 ▲인천아라중 심낙용

<대전교육청> (3월 1일자)
◇교감 승진 ▲대전자운초 심금진

<울산교육청> (3월 1일자)
◇초등교사 ▲내황초 심윤정

<강원교육청> (3월 1일자)
◇유치원교사 전보 ▲강릉시 심예슬
▲태백시 심옥화
◇초등교사 전보 ▲원주시 심영배
▲동해시 심명옥 ▲태백시 심은아
▲정선군 심순희 ▲정선군 심정희
◇중등교사 전보 ▲강원대학교 심소연
▲고성 심순녀 ▲양구 심행란 ▲홍천 심양숙
▲인제 심순호 ▲춘천 심명보 ▲강릉 심재수
▲강릉 심정진

<충남교육청> (3월 1일자)
◇초등교장 전보 ▲의당초 심우길
▲한들물빛초 심재엽
◇초등 교감 승진 ▲금산 심미수

<전남교육청> (3월 1일자)
◇교장 전보 ▲서삼초 심명자
◇교육전문직 ▲학생교육원 심현영

<경북교육청> (3월 1일자)
◇교장 전보 ▲경북생활과학고 심영란

<경남교육청> (3월 1일자)
◇초등교감 전보 ▲김해 심정애
◇중등교장 승진 ▲감계중학교 심재권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심옥주
◇장학사 ▲특수교육원 심은정

<연세대학교 의료원> (3월 2일자)
◇어린이병원 ▲소아신경외과장 심규원

<인제대학교 백병원> (3월 2일자)
◇상계백병원 ▲치과 과장 심혜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월 2일자)
◇교수 임용 ▲산업공학과 심재웅

<강원도개발공사> (3월 11일자)
◇승진 ▲고객지원팀 심광섭
◇전보 ▲경영관리처장 심광석(행정2급)

<새마을금고중앙회> (3월 15일자)
◇지역 본부장 ▲서울지역본부 심재관

<경북 안동시> (3월 17일자)
◇승진전보 ▲보건환경국장 심정규

6월 1일 지방선거에 일가들 출사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치르는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의원, 기초단체장, 시군구의원 선거에 일가분들이 여러 명 출마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당내 경선 등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시도지사

경기지사 후보 심재철



새로운 희망과 경기!
깨끗하게 유능하게 **심재철** 과 함께!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심재철**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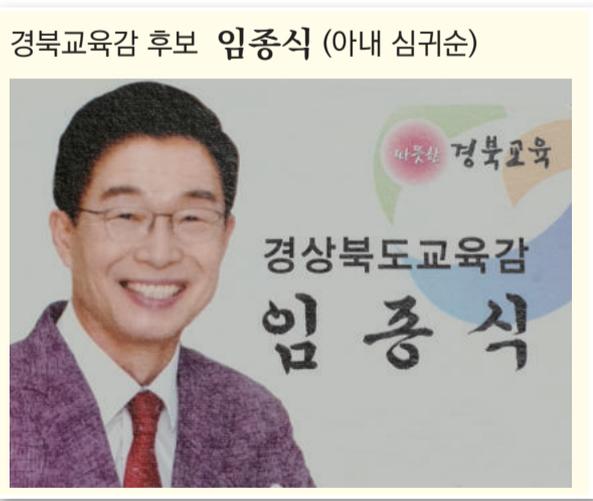
인천시장 후보 심재돈



바꾸지 못하면 실패한다!
"윤석열이 꿈꾸는 대한민국 심재돈 인천에서 시작합니다"
심재돈
인천시장 출마기자회견
·2022년 3월 17일 10:30
·인천시청앞 애들광장

■ 교육감

경북교육감 후보 임종식 (아내 심귀순)



따뜻한 경북교육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 지방자치단체장

강릉시장 후보 심영섭



국민의힘 강릉시장 선거 **2**
심영섭

동해시장 후보 심규언



동해시입니다

고창군수 후보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더좋은고창 **심덕섭**
前 국가보훈처 차장
소멸 위기의 고창을, 꿈과 희망 생명의 고창으로

충북교육감 후보 심의보



마음을 나누는 교육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따듯한 교육을 위해 심의보가 동행합니다.
희망교육감 **심의보**
교육학박사

임실군수 후보 심민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임실군수 **심민**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Tel: 063)640-2000
Mobile: 010-3684-4360

기장군수 후보 심현우



국민의힘 <http://busanpeoplepowerparty.kr>
기장군수 **심현우** 후보
2심현우
Mobile, 010-6727-4112
대통령직 인수위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장군지부장
청년 "심현우" 살기좋은 기장만들기

광역시도의회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후보 심철의



경기도의회 의원 후보 심민자



강원도의회 의원 후보 심영미



전남도의회 의원 후보 심재근



경남도의회 의원 후보 심상동



경남도의회 의원 후보 심경숙



전남도의원 후보 심기동



충남도의회 의원 후보 심상찬



충북도의회 의원 후보 심기보



기초 시군구의회 의원

서울양천구의회 의원 후보 심광식



인천시 서구의회 의원 후보 심우창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 후보 심영석



경기 이천시의회 의원 후보 심의래



강원 평창군의회 의원 후보 심현정



경북 청송군의회 의원 후보 정미진(남편 심부섭)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 후보 심상복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 후보 심재성



경남 거창군의회 의원 후보 심재수



전남 장성군의회 의원 후보 심민섭



경북 청송군의회 의원 후보 심상휴



경남 양산시의회 의원 후보 신재향(어머니 심영자)



공지사항

연 1만 원 내고 종보 구독하는 일가 1만 명 확보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30만 일가분들의 소식, 족보수단 안내, 장학금 신청공고 및 선조 사적지 소개 등의 기사로 격월 발행하는 청송심씨중보는 청송 심문(沈門)의 정보지입니다. 대중회는 연회비 10,000원 이상 찬조 구독자 10,00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직접 참여 일가분 확대, 저명하신 편집위원 위촉 등 모범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보 구독신청은 받으실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아래 연락처 등으로 알려주시고, 아울러 종보 발전에 기여하실 일가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신청 : 전화 02) 2267-7857, 2267-9339 팩스 02) 2269-7755 또는 밴드, 페이스북》

☞ 종보 찬조금 송금계좌 농협 301-0134-7557-61 청송심씨대중회
☞ 임원회비 송금계좌 농협 301-0107-5873-71 청송심씨대중회

☞ 장학금 기부계좌 ☞ <농협 301-0256-8973-11 재단법인 청심장학회>

2022년도 춘향(春享) 일정표(5처묘소 2단소)

세(世)	제 향 일 시	장 소	비 고 (주차장)
시 조 문림랑공	4. 6(수) 정오	청송군 청송읍 덕리 산33	덕리 427
2세조 합문지후공	4.11(월) 11시	함열읍 남당리 산64-1	남당리 243-1
3세조 청화부원군	4.13(수) 11시	안성시 당왕동 산19-6	당왕동 290
4세조 정안공	4.15(금) 11시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산110	아미리 554
4세조 배위 (청주송씨)	4.17(일) 11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265-1	분평동 262
4세조 악은공	4.25(월) 정오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217	덕천리 217

※ 요즈음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태를 감안하여 기침이 나거나 열이 높으신 일가께서는 참사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청송심씨 풍덕공파 여산공(휘인보) 종중회원 명부작성 협조요청

청송심씨 풍덕공파 여산공(諱 仁補, 청송심씨 12世祖)의 子孫으로 綽(작), 統(담), 縵(을), 紐(뉴) 四兄弟 後孫들로 族譜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연락처를 몰라 여산공할아버지 시제와 총회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자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제와 총회에 참여하는건 물론, 종중원 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고, 선조산소와 재산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대중회 종보를 보시고, 뜻이 있는 자손들은 어느 할아버지의 자손인지 아래의 양식처럼 작성하여 알려드린 주소로 보내주시면 회원명부에 등재하고, 시제와 총회 시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산공 할아버지 아드님	綽(작)	統(담)	縵(을)	紐(뉴)
※ 해당 할아버지에 ○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전화 혹은 폰번호)

보낼 곳 : (우26442)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777, 101동 304호(개운동, 덕산아파트)
청송심씨 풍덕공파 여산공종중회장 심정보(010-5365-9905)

기사정정- 제152호

60만원→6만원	리택
50만원→5만원	길수,윤수,학섭,상근,영희,재권,희보,우경,경보,재근,성진,극택,춘길,행섭,우엽
30만원→3만원	자석,효진,수지,규강,연보,규춘,욱환,동석,규선,재운
20만원→2만원	영우,대섭,재수,혜자,재하,상환,진석,재덕,응근,정식,규태

기사정정- 제153호

종보찬조 20만원 심상돈(대구) → 심상돈(화성)

각 찬조 2022.1.16~2022.3.21 (50만원이상- 월 순으로)

■ 각 50만원 이상 찬조 시 2회 사진전개



심재창 이경공중회 회장
심종식 청심회 일동 회장
심재금 김포한강신협 본점 이사장
심형근 진사공파중중 아산중회 회장

장학찬조 200만원 2021년12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1년12월	장학찬조 50만원 2021년12월	종보.달력찬조 100만원 2021년11월
---------------------	---------------------	--------------------	------------------------



심재규 선무공파중회 회장
심상보 안효공파옥현 문중 회장
심정구 인수부유평파 중회 회장
심종식 현재공중회 회장

종보.달력찬조 100만원 2021년12월	종보찬조 100만원 2021년11월	종보찬조 100만원 2022년1월	달력찬조 100만원 2022년1월
------------------------	---------------------	--------------------	--------------------



심종택 임천공파중회 회장
심재문 부사공중회 회장
심진호 광주부유평파 선산중회 회장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종보.달력찬조 400만원 2022년1월	종보.장학찬조 400만원 2022년1월	종보.달력찬조 150만원 2022년1월	장학찬조 200만원 2022년1월
-----------------------	-----------------------	-----------------------	--------------------



심재일 청원사복시정공중회 회장
심백강 민족문화연구원 원장
심정보 풍덕공파중회 회장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2월	장학찬조 100만원 2022년3월	종보찬조 50만원 2022년3월
--------------------	--------------------	-------------------

임원회비

- 이사회비(21년분) 50,000
심 훈(대구), 심정섭(전남), 심진식(광주), 심종홍(경기), 심상소(충천)
- 감사회비(22년분) 200,000
심종혁(감사), 심달훈(감사)
- 이사회비(22년분) 50,000
심종택(군포), 심주택(경기), 심상경(서울), 심정섭(서울), 심상두(충남), 심현석(대구), 심재경(창원), 심재모(창원), 심진식(광주), 심재운(대전), 심상소(충천), 심규일(경기), 심재용(대전), 심준보(서울), 심상근(전주), 심언촌(수원), 심성보(대전)

장학찬조

- 1,000,000 청원사복시정공중회(회장 심재일), 심백강
- 100,000 심치숙, 신천공파중회(회장 재필), 심동식
- 90,000 심재희
- 50,000 심재용(대전)
- 20,000 심준호(청송)

종보찬조

- 500,000 심정보(풍덕공파중회장)
- 300,000 심상귀
- 200,000 청원사복시정공중회(회장 심재일)
- 120,000 심윤보(인천)
- 100,000 심치숙(서울), 심언촌(수원), 심원철, 심상택, 심상달, 신천공파중회(회장 심재필), 심우권(부여)
- 60,000 심강채(전남)
- 50,000 심상경(서울), 심관섭(부여), 심창호, 심현석, 심규강, 심진식, 심상소(충천), 심성보(대전), 심진규
- 30,000 심강채(전남), 심재홍, 심강채(전남), 심재중
- 20,000 심재용(대전), 심영우
- 139,310 지료종보찬조